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에 관한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정 수 영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에 관한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정 수 영

인증서

정수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최근 의류의 짧은 수명주기로 인한 의류 쓰레기와 생산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원단 쓰레기들, 의류를 염색하고 난 뒤의 오염 폐수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친환경적인 소비패션에서 진화하여 상품의 이면까지 고려하는 윤리적 패션으로 발전하여 친환경적이고 도덕적인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윤리적 패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많은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주었고, 디자이너들은 소비자와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를 의식하여 윤리적 패션을 소재의 사용이나 디자인, 유통 등에 적용하고 있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현재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선두적인 디자이너로서 윤리적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꼽히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며 윤리적 패션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윤리적 패션과 관련한 전시 및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패션산업의 윤리적 소비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패션의 특성과 마르지엘라의 작품의 경향에 대하여 알아본 뒤, 윤리적 패션의 특성과 관련하여 마르지엘라 작품을 비교하여 마르지엘라 작품에 나타난 윤리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패션은 여러 원단이나 의복을 겹쳐 구성한 형태의 재활용의 한 요소인 형태의 재구성의 특성을 가지며, 인위적인 꾸밈이 없는 레이어링에서 다기능의 리버서블 디자인 등 개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의 다목적성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재이용, 재가공, 재활용, 재자원화 등의 자원 순환개념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특성으로 소재의 재디자인성을 가진다.

둘째, 윤리적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세계 패션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는 디자이너 중 디자인 형태의 구성에 있어 새로운 소재의 사용과 구성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래의 형태구성이 아닌 언발란스 디테일, 재단의 변화, 입체와 평면감등의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를 가지며, 직물, 종이,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소재의 분해와 조합 등의 창조적인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리사이클링 아트의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왜곡, 변형, 해체, 교란 등의 구성과 비대칭 커팅 등의 표현을 통한 경계 모호성의 경향을 나타낸다.

셋째, 윤리적 패션의 특성인 형태의 재구성, 스타일의 다목적성, 소재의 재디자인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경향인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 리사이클링 아트, 경계의 모호성의 경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패션은 윤리적 패션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형태의 재구성, 스타일의 다목적성, 소재의 재디자인의 특성을 가지는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경향과 방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윤리적 패션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 패션 컬렉션에서의 출연시기가 오래지 않아 분석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중심으로 실증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바, 앞으로 후속연구 및 비교 연구 등 다각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윤리적 패션의 개념 및 형성배경	4
2. 윤리적 패션의 특성	25
III.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에 대한 고찰	40
1.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40
2.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경향	42
IV.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	51
1. 형태의 재구성	51
2. 스타일의 다목적성	56
3. 소재의 재디자인	60
V. 결론	67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윤리적 패션의 형성배경	18
<표 2> 재디자인의 개념 및 의미	34
<표 3>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의 특성	66

그림 목 차

<그림 1> 기업윤리에 어긋난 나이키의 아동노동	19
<그림 2> 1973년 겐조의 히피 스타일	19
<그림 3> 화려한 집시 스커트의 히피 패션	19
<그림 4> 1960년대 후반 프런지 장식의 히피 패션	19
<그림 5> 1970년대 핑크 스타일의 연출	20
<그림 6> 디테일로 표현한 핑크	20
<그림 7> 디자이너의 핑크 패션 실현	20
<그림 8> 런웨이에서 연출한 핑크 패션	20
<그림 9> 그런지 패션의 상징	21
<그림 10> 마돈나의 그런지 패션	21
<그림 11> 런웨이에 나타난 그런지 패션	21
<그림 12> 런웨이에서 연출된 그런지 패션	21
<그림 13> 알렉산더 맥퀸의 원시적 에콜로지 패션	22
<그림 14> 배수정의 한지· 닥섬유의 에콜로지 패션	22
<그림 15> 후세인 살라얀의 에어메일드레스	22
<그림 16> 후세인 살라얀의 리버시블 디자인	22
<그림 17>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이경재 드레스	23
<그림 18> 까르뜨니트의 한지 니트 디자인	23
<그림 19> 알렉산더 맥퀸의 클러브 재사용 패션	23
<그림 20> 인도와의 공정거래	23

<그림 21> 공정거래 국내 최초 브랜드 ‘그루’	24
<그림 22> 제3국에 신발이 기부되는 브랜드 ‘TOMS’	24
<그림 23> 재사용디자인의 수트 롤 백팩	35
<그림 24> 양복주머니를 재구성한 토트백	35
<그림 25> 안전벨트로 만든 필통	35
<그림 26> 영국 코루톨드사의 텐셀(Tencel)	35
<그림 27> 리블랭크의 ‘클로젯프로젝트’	36
<그림 28> 윤리적 데님브랜드 ‘쿠이치’	36
<그림 29> 프라이탁의 트럭덮개로 만든 가방	36
<그림 28> 프라이탁의 공정과정	36
<그림 31> ‘아비쉬 아롬 거’의 08년 S/S 컬렉션	37
<그림 32> ‘리타 나르디’의 08년 S/S 컬렉션	37
<그림 33> 인체의 자유를 나타낸 디자인	37
<그림 34> ‘이세이미야케’의 주름 응용 디자인	37
<그림 35> 자투리 천을 모아 만든 양말	38
<그림 36> 카텔 게레바의 친환경 패션 라인	38
<그림 37> 게리 하비의 파이낸셜지로 만든 드레스	38
<그림 38> 게리 하비의 과자봉지로 만든 드레스	38
<그림 39> ‘아비쉬 아롬 거’의 08년 S/S 컬렉션	39
<그림 40> 버려지는 전단지를 접어 붙인 드레스	39
<그림 41> 형태의 재구성을 통한 바지 디자인	48
<그림 42> 기본 원피스 형태를 벗어난 디자인	48
<그림 43> 의상의 볼륨을 극단화한 디자인	48
<그림 44> 재킷 봉제 바지 디자인	48
<그림 45> 쓰고 남은 원단을 엮어 구성한 재킷	49

<그림 46> 폐잡지의 리사이클링 디자인	49
<그림 47> 성의 모호한 경계성의 페미닌 재킷	49
<그림 48> 모호한 성의 매니쉬한 셔츠	49
<그림 49> 병뚜껑을 소재로 활용한 베스트	50
<그림 50> 레코드판으로 제작한 드레스	50
<그림 51> 오리엔탈 침구류를 이용한 재킷, 앞	53
<그림 52> 오리엔탈 침구류를 이용한 재킷, 뒤	53
<그림 53> 다른 베스트를 재구성한 재킷, 앞	53
<그림 54> 다른 베스트를 재구성한 재킷, 뒤	53
<그림 55> 여행용 가방을 재구성한 재킷, 앞	54
<그림 56> 여행용 가방을 재구성한 재킷, 뒤	54
<그림 57> 클러치가방을 재구성한 재킷	54
<그림 58> 클러치가방을 재구성한 부츠	54
<그림 59> 빈티지 모자를 재구성한 재킷	55
<그림 60> 목걸이를 이어 만든 베스트형태	58
<그림 61> 목걸이를 이어 만든 벨트형태	58
<그림 62> 반지를 엮어 만든 드레스형태	58
<그림 63> 안장을 엮어 만든 베스트형태	58
<그림 64> 여러장의 셔츠를 엮은 드레스, 앞	59
<그림 65> 여러장의 셔츠를 엮은 드레스, 뒤	59
<그림 66> 스카프를 연결한 재킷의 다목적성	59
<그림 67> 버려진 우산을 이용하여 제작한 재킷	63
<그림 68> 축구공의 분해 패턴을 활용한 재킷	63
<그림 69> 미러볼을 이용하여 재디자인한 셔츠	63
<그림 70> 버려진 손수건을 활용한 셔츠	63

<그림 71> 오래된 카드로 재디자인한 베스트	64
<그림 72> 재활용 운동화로 재디자인한 베스트	64

I. 서론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2011년 트렌드 검색어로 꼽히는 단어는 ‘윤리적 패션(Ethical Fashion)’이다.

산업화에 의한 생산의 대량화는 대량 소비와 대량 폐기라는 부작용을 가져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파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 패션은 큰 이슈가 되었다.

피에티(C. Peattie)는 ‘그린 마케팅이란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지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등장한 마케팅의 한 유형이며, 고객 및 사회의 요구를 유익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규명, 예상 및 충족시키는 책임을 진 전체의 관리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¹⁾

현대 사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등장한 친환경적인 소비자와 상품의 이면까지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자가 증가하고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부추긴다. 이제 친환경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 패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오랫동안 패션은 환경의 적으로 치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트렌드에 가장 크게 반응하고, 실제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나타내는 영역이기에 많은 패션 전문가들이 환경과 사회 윤리를 생각하자는 의미와 멋스러움이 더해진 ‘윤리적 패션’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반응하여 최근에는 많은 유명 디자이너들과 패션그룹들도 윤리적 패션에 동참하게 되면서 섬유와 소재 등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런웨이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디자이너들이 윤리적 패션을 표현하고자 한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식품, 화장품, 의류 등에서부터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의

1) 박옥련 외 3인(2009), 「21세기 패션과 소비행동」, 서울: 형설출판사, p. 192.

환경과 윤리적 역할을 강조한 상품, 기업의 운영 방식과 사회 환원에까지 관여하는 사회적 기업 상품 등 다양한 윤리적 상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패션에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들의 움직임으로 에콜로지 산업의 첫 번째 과제인 패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과거 많은 디자이너들과 산업체들이 재활용 패션을 상품화하고자 하였으나 재활용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에 디자이너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며 패션 폐기물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패션을 선보이는데 이는 패션 폐기물을 응용하여 새로운 패션을 창조해내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윤리적 패션의 현상과 경향에 대한 전반적 고찰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세계 패션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벨기에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패션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고 윤리적 패션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그가 작품을 전개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 기존에 제작되어 사용되어지는 아이টে임을 해체, 재구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패션으로 창조하는 등 그의 패션을 통하여 어떠한 아이টে임의 활용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렌드의 영향으로 이슈를 위하여 착의가 불가한 소재나 이벤트성의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은 실제로 의복의 기능과 구성이 가능한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인하여 그린 패션, 에코 패션 등과 윤리적 패션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소재와 섬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디자인영역에서도 색채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윤리적 패션에 관한 선행논문 및 국내외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중심으로 윤리적 패션의 실증적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디자인을 분석하여 현대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의 표현유형을 심도있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방향의 새로운 윤리적 패션의 영감을 제시, 의상 디자인의 새로운 범주로 확대 전개하며, 디자인 구성방법에 있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윤리적 패션의 개념 및 형성배경

1) 윤리적 패션의 개념

윤리(倫理,ethics) 혹은 도덕(道德,morality)²⁾은 인간이 사회에서 당위적으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지침을 말한다. 윤리와 도덕은 특성, 관습 등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의 'ethos'와 생활 습관이나 기준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mos'에서 유래한 것으로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 육성된 개인의 도덕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고,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전파하면서 사회의 가치관을 다원화시켰다.³⁾ 금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칼뱅의 직업 윤리는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경제행위의 당위성을 세속적·공리주의적 의미로 해석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산 및 수정되면서 경제행위에 대한 윤리는 경제윤리, 기업윤리, 경영윤리, 소비윤리 등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21세기는 '윤리의 시대'로 정부, 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윤리적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⁴⁾

윤리적 패션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소재와 생산과정, 공정무역 등을 기반으로 한 의식있는 패션으로 디자인, 생산, 리테일, 구매를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포괄적 용어로 패션업계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

2) 브리태니커백과사전편집위원회(2002),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 5권」, 서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pp. 174-175.

3) 이태하(2009), 「다원주의 시대의 윤리-이론과 적용」, 서울: 민지사, p. 12.

4) 이유리 외 7명(2009), 「패션산업윤리의 이해」, 경기: 교문사, pp. 18-19.

책을 찾고 친환경적 패션을 창조하는 목적을 가진 보전과 창조의 통합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윤리적 패션은 에콜로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197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디자인 대상의 형태나 기능을 포함하여 디자인의 주제나 개발 과정 및 디자인 평가 부분에까지 디자이너들의 책임이 확대된 친환경적 패션 영역⁶⁾이라고 볼 수 있다. 윤리적 패션은 최근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구성되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하여 먼저 자연이 보전되고 지속되며 창조되어야 하며 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최근 들어 세계 패션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⁷⁾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문화인 웰빙⁸⁾과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환경,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는 사회적 웰빙의 개념을 뜻하는 친환경적인 소비 형태인 로하스⁹⁾ 문화의 확산은 건강과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품의 소비성향을 추구하게 되었다. 패션과 환경의 조화를 위하여 패션 산업의 원자재부터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과 개발, 의류 생산의 공정거래, 적절한 임금, 노동환경,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

5) 패션넷코리아(2011, 5.8), “윤리적패션,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 자료검색일: 2011, 5.8, 출처: www.fashionnetkorea.com

6) 서문정(2003), "에코 패션디자인의 개념 정립과 사용자 참여 프로세스의 실천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 6.

7) 고애란, 노지연(2009), 한국에서의 윤리적 패션 소비자 행동,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3. No. 12, pp. 1959.

8) 두산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1. 5. 6, 출처: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3891

9) 두산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1. 3. 6, 출처: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05230

지 전체의 산업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다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디자인 분야로 윤리적 패션이 정착되었다.¹⁰⁾

빅터 파파넬은 우리에게 맡겨진 고유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며, 디자이너가 이 모든 생태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료의 선택과 제조, 제품의 포장과 유통, 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생태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¹¹⁾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에 환경 친화적인 가치가 부여된 상품의 개발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급스럽고 편안한 삶에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자각이 결합되어 나타난 엘리트 소비문화의 한 현상으로 단순한 제품의 구입에도 본인 뿐 아닌 지구의 건강, 환경 및 아름다움을 포함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해내는 것으로 고가의 가격보다는 결과의 가치를 위한 구입을 하는 현대 엘리트들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케팅의 대가 필리 코플러(Phillip Kotler)는 상품력으로 승부하던 마켓 1.0시대, 고객만족이 우위를 점하던 마켓 2.0의 시대가 지나고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터전인 마켓 3.0의 시대가 창조되고 있다고 시장 변화의 흐름을 이야기했다.¹²⁾

최근의 패션 디자인이 복잡화된 사회구조와 현대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차원의 기능과 복합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맞물려, 정형화된 것보다는 유동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호를 충족시킴으로써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¹³⁾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10) 이은영(2010), "패션산업에서의 에코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p. 20.

11) Victor Papanek(2008), 조영식 역, 「인간과 디자인의 교감」, 서울: 디자인하우스, p. 31.

12) Phillip Kotler(2010), 「마켓3.0」, 서울: 타임비즈, p. 19.

13) 김은경(2001), "기호학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패션의 특성고찰과 복식디자인",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 43.

즉, 윤리적 패션은 발달한 문명과 자연 사이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보다는 평형을 중시함으로써, 자연의 원리를 디자인에 적용시켜 쾌적한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윤리의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패션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패션 산업 내에서 윤리적 패션의 주체와 활동 영역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크게 기업과 소비 윤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업윤리는 다시 업무상 관련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성과의 관련 이슈들을 비교하여 환경, 노동, 제품디자인, 상거래 등으로 영역화 할 수 있다.

공급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산업의 윤리적 문제에 크게 관여된다. 기업 윤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경영방침의 윤리적 적정,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파괴, 인권유린 등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의 여부, 국가와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 제품 결함에 대한 잘못의 인정과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CSR을 표준화한 ISO26000의 국제규격을 제정한다고 공표했으며, CSR라운드라 불리는 이 규격은 환경경영, 정도(正道)경영, 사회공헌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¹⁴⁾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이미지나 광고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염려, 제3세계에 대한 동정, 외국인 학대 반대 표명, 동물실험반대’ 등의 표어를 제정하여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¹⁵⁾

또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차별 및 징벌 금

14) 이유리(2009), op.cit., p. 8.

15) Norbert Bolz(2002), 고재성 역, 「컬트마케팅」, 경기: 예영커뮤니케이션, p. 34.

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최저임금 보장 및 연장근무 규정 등의 노동 및 인권 관리강화 요건과 SA8000(Social Accountability Standard)¹⁶⁾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협력을 통한 외부인증 윤리 시스템 구축, 자체적인 윤리구매 관리 모형의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지속가능 경영의 사회적 측면을 평가하고 있다.¹⁷⁾

시장경제체제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트렌드 형성의 주체로 소비자 파워를 갖게 되었고, 생산 활동이 소비자의 요구 및 욕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소비윤리는 기업 윤리만큼이나 사회적·경제적·윤리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였다.¹⁸⁾

소비윤리는 생태학적 차원에서의 이성적 소비로 제품의 구입과 사용, 그리고 폐기 단계까지를 고려하는 총체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가격과 품질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가령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도 저임금, 인권침해, 환경훼손과 관계된 상품이라면 구매하지 않는 등 ‘건강’, ‘환경’, ‘사회’ 를 생각하는 소비행위이다.

소비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편리함’에 대한 유혹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는 상황은 일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잉여 생산된 물건들은 편리함을 가장하여 경쟁적으로 팔리면서 충동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가장한 기업의 상술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편리함과 필요를 구별해야만 한다.¹⁹⁾

16) 1997년 미국 노동부 산하 근로문제 연구 기관인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에 의해 제정된 근로자 노동환경 인증 시스템 규격. 아동노동,보상,차별, 강제노동, 근로시간, 보건,안전, 단결권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함.

17) 고순현·(주)에코프론티어(2005), "윤리구매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 *sustainableity issue papers*, Vol. 31, p. 6.

18) 이유리 외(2009), *op.cit.*, p. 27.

2) 윤리적 패션의 형성배경

윤리적 패션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서 출발하였다. 지난 세기동안 비약한 과학의 발달과 대량생산체제의 산업구조, 세계화로 인한 저렴한 가격의 원재료와 노동력의 제공, 코튼 재배의 산업화로 인하여 지역에 관계없는 소싱, 보다 저렴한 가격·빠른 속도로 대량 공급이 가능해졌다. 천연섬유를 통한 생산만으로는 수요량을 만족시킬 수 없어 인조섬유를 개발하였고, 인조섬유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공 방법들이 개발되어 섬유제품의 성능향상에 모든 노력이 기울어져 있었다.

세계적으로 패션 산업은 전체 경제 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며 일자리와 부를 창조하는 경제 개발의 주축이다. 적은 자본과 인프라로 시작할 수 있기에 산업화의 초기 단계로서 특히, 후진국에서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저개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²⁰⁾

그러나 패션과 관련한 산업이 발전할수록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빈곤층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커져만 갔고, 산업·경제적 측면은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지만 인간 중심의 산업 성장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고, 각 시즌마다 컬렉션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패션 상품을 원하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적 요소로 포장하여 지속적인 의류 구매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였고, 글로벌화는 소비자들을 유행에 더욱 민

19) Victor Papanek(2008), op.cit., pp. 87-91.

20) 국제섬유신문 정책 칼럼(2005, 6.14.), “섬유산업 ‘관’ 다시 짚다”, 자료검색일: 2011, 4.11 출처: <http://www.itnk.co.kr/i03.htm?mode=body&page=15&number=15968&keyfield=&key=&category=>

감하게 만들어 유행의 유지 주기가 짧아지게 되었다.²¹⁾

윤리적 패션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표적인 사건은 1996년 ‘라이프’지 6월호에 실린 12살짜리 소년이 나이키 상표가 찍힌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어린이 노동을 비판하는 기사였다. NGO와 소비자 단체들은 나이키 제품에 대한 지탄과 불매운동으로 나이키의 상품을 외면하였다.²²⁾(그림 1)

윤리적 패션은 히피 패션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핑크 패션, 그런지 패션으로 이어져 현재의 윤리적 패션으로 발전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히피 패션(Hippie Fashion)

1960년대 후반 등장한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사회의 체제나 상식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회구하는 집단²³⁾인 히피 패션은 기성사회와 관습에 반발하여 몸치장 따위에 무관심하며 현대문명의 이기와 물질만능에 저항하였으며 가난을 통한 자아회복 또는 인간성 회복에 노력하였다.²⁴⁾ 베트남 전쟁 등과 같은 사건으로 사회가 위축되고 어두워진 시기에 히피는 전쟁에 반대하고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집단으로 남녀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 생활을 하였으며 비폭력적인 문화혁명을 추구하였다.²⁵⁾ 산업사회의 물질문명과 인조섬유로 대량 생산된 의복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낡고 오래된 중고 의류에 대한 관심은 현재를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하지만 일시적인 도피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미국문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한

21) 김정선(2007, 1.25), "환경의 적 '패스트 패션, 쓰레기문제 심각'", 경향신문, 자료검색일: 2011, 5.4.

22) 삼성 디자인넷(2010, 12.6), "what is CSR Marketing?", 자료검색일: 2011, 5.11,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Report/content.asp?an=619>

23) 김수경(1991), 「패션사전」, 서울: 디자인신문사, p. 255.

24) 두산동아(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8권」, 서울: 두산동아, p. 635.

25) 정명선 외 4인(2011), 「패션과 문화」,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p. 159.

향수를 담고 있으며 자유에 대한 상징으로 젊은이들에게 애용되었고 특히 히피들은 벨보텀 라인에 낚아서 헤어졌거나 찢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디테일이나 징을 달거나 자수 장식 등의 트리밍을 한 진 팬츠를 즐겨 입었다. 당시의 패션으로 <그림 2>와 같이 히피족의 심볼이었던 사랑과 꽃의 영향으로 화려하면서도 경박한 짚시풍의 드레스가 유행하였다. 짐시스커트, 튜닉드레스, 꽃무늬 드레스, 인도풍 에스닉 의복, 프린지 장식된 스타일, 레이어드 스타일, 구슬 목걸이, 머리두건, 헤어밴드 등이 대표적이 아이템이다.²⁶⁾(그림 3, 4)

겐조(Kenzo), 이브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등의 디자이너가 페전트 블라우스와 풍성한 드레스, 폭이 넓고 긴 스커트를 발표하였고, 민속복과 짐시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였다. 이 모든 아이템들은 패치워크, 술장식, 자수, 문양의 혼합을 통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되었으며 에스닉한 요소를 많이 담고 있었다.²⁷⁾그러나 히피 패션이 부유층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반문화적 메시지는 약화되고 그 이미지만이 값비싼 디자이너 제품으로 옮겨갔다.²⁸⁾

(2) 펑크(Punk Fashion)

펑크란 ‘재미없는 것, 시시한 것, 불량소년·소녀, 풋내기’등의 의미로 반항적이고 파괴적이며 불쾌감을 야기할 정도의 공격적인 패션으로 안티 패션의 상징²⁹⁾으로 규정된 의복과 관습에 대한 반항으로서 기성세대에 충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런던에 나타난 록밴드들의 무대의상에서 시작

26) Ibid., p. 132.

27) Ibid., p. 166.

28) 이은영 외 2인(2000), 「패션」, 서울: 교학연구사, p. 63.

29) 정명선(2011), op. cit., p. 167.

한 패션으로 머리를 핑크나 녹색으로 염색하고, 안전핀, 면도칼을 액세서리로 하여 고무나 플라스틱제의 팬츠, 마이크로 미니의 스커트, 플라스틱과 그물로 된 셔츠 등을 착용한다. 극히 일부 젊은이들의 핑크패션이 점차 일반 패션에 영향을 주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유행하였다.³⁰⁾(그림 5, 6)

젊은이들은 자신의 무력함과 국가에 대한 불만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길 원하였으며, 그런 방법을 위해 핑크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1970년대 말 실업의 증가와 그들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에 대한 좌절과 반동으로 반항적이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격적인 특징을 가진다.³¹⁾

상류층의 사람들이 명품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치장하는 것에 반(反)하여 일부러 싸구려로 휘감고 다니는 것에서 유래되었고, 고상한 취미보다는 저속한 취미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적 질서를 벗어난 무형식, 부조화, 불균형의 미를 추구한다. 그림처럼 품위없는 천한 모습의 옷차림과 싸구려 액세서리 등에 의한 과잉 장식을 통해 지저분하고 추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룩이다.(그림 7, 8)

원시문화인 아프리카를 동경하였으며 보헤미안스타일로 실생활의 사소한 물건들-면도날, 낡은 볼트, 반지 옷핀, 쇠사슬 등을 도입하여 장신구로 사용하고, 고무나 플라스틱제의 팬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플라스틱 네트로 된 셔츠, 멜빵바지, 모조표범가죽, 당돌한 구호가 프린트 된 티셔츠 등을 고의적으로 무질서하게 코디네이트시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패션을 보인다.³²⁾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장 폴

30) 라사라(1991), 「복식사전」, 서울: 라사라, p. 366.

31) 두산동아(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6권」, 서울: 두산동아, p. 479.

32) 이은영(2000), op. cit., pp. 80-84.

고티에(Jean Paul Gautier), 모스키노(Moschino) 등이 있다.³³⁾

(3) 그런지 패션(Grungr fashion)

그런지 패션은 더럽고 지저분한 스타일에서 낡아서 해진 듯한 의상으로 편안함과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는 스타일까지를 포함한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유행한 록 음악 형식을 말하는데, 패션에서는 <그림 9>와 같이 낡은 데님 팬츠와 스니커즈를 아무렇게나 걸친 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³⁴⁾

1980년대에는 정통 하이패션과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로 펑크록스타일에서 시작한 영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된 초라하고 지저분한 느낌의 그런지 패션은 도회적 보헤미아니즘(bohemianism)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히피록에서 풍기는 초라하고 남루한 분위기와 하류층의 복식 요소의 영향으로 이어져 구속받지 않고 자기 편한대로 입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³⁵⁾(그림 10)

그런지란 ‘지저분한 · 불결한 · 질이떨어지는’ 의 뜻으로 록그룹 ‘너바나’, ‘펄 잼’ 등의 스타들이 무대 의상으로 입고 등장한 후, 실용적이고 감각있는 젊은이들에 의하여 할인 매장이거나 중고품 시장, 자선바자회에서 싼 가격에 해진 청바지, 허름한 할아버지 코트에 꽃무늬 스커트, 털실로 짠 스웨터와 모자 등을 골라 서로 개성있게 레이어링의 가능성으로 나타난다.³⁶⁾ 코디네이트의 특별한 형식없이 아무렇게나 걸쳐입는 것이 특징으로 가난한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세계의 길거리는 물론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밀라노 등 고급 기성복 콜렉션 무대에서도 선풍을 일으키며 세계 패션을

33) 정명선(2011), op. cit., p. 131.

34) Ibid., p. 116.

35) 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1, 4.13.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00221>

36) 정명선(2011), op. cit., p. 116.

주도하였다. 화려한 의상은 사라지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돌체가바나, 페리 엘리스 등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수백달러짜리 저지 옷을 판매하는 등 상류 사회에서도 나타난다.³⁷⁾(그림 11,12)

(4) 에콜로지 패션(Ecology Fashion)

에콜로지는 ‘생태학’이란 뜻으로, 천연 소재를 주로 사용한 자연 지향적 룩의 총칭이다. 자연스러운 멋을 부각시키기 위해 천연섬유, 천연 염료로 염색된 소재를 사용하며,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활동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인간과 환경, 패션을 조화시킴으로써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³⁸⁾

1990년대의 환경보호운동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피코트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천연섬유, 천연염색, 자연을 모티프로 하는 에콜로지 패션이나 민속풍(ethnic look) 등이 등장하였다.³⁹⁾

천연섬유와 천연염색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이 깃든 패션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패션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었고, 자연에서 채취한 염료와 섬유 등을 사용한 자연스럽고 수수한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자연 색상 위주의 컬러와 천연 소재를 사용한 핸드 메이드 작품, 민속풍의 옷차림과 불규칙한 주름을 주어서 천을 움켜쥐었다가 펼쳐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크링클(crinkle) 주름의 사용을 찾아 볼 수 있다.⁴⁰⁾

또한 동물 애호 차원에서 가죽옷이나 모피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급

37) 정운길(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서울: KDR한국사전연구사, p. 49.

38)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1, 4.11,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02051>

39) 정명선(2011), op. cit., p. 87.

40) 정운길(1997), op. cit., p. 879.

격한 산업화 후 사회 생태학적 균형이라는 개념 아래 모피코트에 대한 비난을 계기로 환경의 보존과 개선이라는 측면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공동선 지향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에콜로지 가치관이 확산되었다.⁴¹⁾

<그림 13>은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의 “It’s a jungle out there”로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인간 본연의 모습을 부각하여 에콜로지 패션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림 14>는 한지직물, 닥섬유, 대나무를 디자인에 활용한 배수정의 작품으로 에콜로지 패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세인 사라얀의 경우 에어메일 드레스와 리버시블 웨어 등을 디자인하여 에콜로지의 이념을 적용하였다.(그림 15, 16)

(5) 윤리적 패션(Ethical Fashion)

이러한 패션 트렌드의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아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현대인의 정신성과 융합되어 뉴 에콜로지 개념의 윤리적 패션으로 발전하였다.⁴²⁾ 기존의 에콜로지가 환경 친화적이고 재활용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윤리적 패션은 환경적인 이슈가 생활 전반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연에 대한 적응과 융화의 관점에서 유기농 의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나무, 코코넛, 콩, 오가닉 코튼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 패션 소재의 사용⁴³⁾과 함께 이미 상품으로 완성된 제품의 재이용, 재가공하는 소재 재활용, 산업 폐기물의 재자원화까지 자원을 순환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 걸친 재디자인(Redesign)의 경향을 보인다.⁴⁴⁾

41) 권영걸(2003),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도서출판국제, p. 105.

42) 허은숙(2004), "에콜로지 표현의 아트 패브릭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 13.

43) 다음시사상식사전, 자료검색일: 2011, 4.13.

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7XXXX2873>

44) 이민호(2006), "재사용 및 재활용에 적합한 환경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p. 13.

윤리적 패션의 초기 방향을 제시한 친환경·재활용 패션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썬기폴, 한지, 옥수수전분 등을 이용한 천연섬유가 국내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옷도 개발되고 있다. ‘오르그닷’은 친환경·공정무역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돕기 위해 만든 곳으로 이경재 디자이너가 옥수수전분이나 썬기폴, 유기농 면으로 만든 웨딩드레스는 폴리원단의 일반 웨딩드레스와 달리 폐기돼도 저절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제품 탄생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면서 ‘에코 웨딩’이라는 문화적 이슈도 만들고 있다.(그림 17)

니트 브랜드인 까르뜨니트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인 전통 한지로 만든 한지 니트 카디건과 재킷을 최근 선보였다. 전통 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한지사 섬유를 사용했으며, 암모니아·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소취기능도 있다.(그림 18)

윤리적 패션의 일환으로 패션 폐기물 재작업을 통한 재디자인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주목받고 있다. 버려지는 재료를 다시 쓰는 리사이클링을 넘어 제품을 해체한 후 아이디어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이차적으로 재가공한 결과물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한 재활용인 리사이클을 한 단계 뛰어넘는 개념으로 폐품을 전혀 새로운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⁴⁵⁾ 시각적 디자인을 통해 소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며, 일차적 재활용을 진부하다고 느끼는 신진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윤리적 책임을 통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19>는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이 컬렉션에서 선보인 의상으로 버려진 클러브를 재디자인을 통하여 업사이클링 결과물을 선보인 의상으로 클러브의 형태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패턴을 정교하게 재구성한 디자인

45) 패션넷코리아(2011, 5.), "윤리적 패션(Ethical fashion),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 자료검색일: 2011, 5.10, 출처: http://www.fashionnetkorea.com/04_market/sub_index.asp

으로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되었다.

이러한 윤리적 패션에 대한 관심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선두가 되어 시작되었다. 2005년 환경 선언을 한 루이비통, 구찌 등의 브랜드나 패션 기업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에서는 2007년 경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 Obliege)라는 이슈와 함께 국내외 유명인사와 셀러브리티들의 기부, 봉사 등의 활동이 대두되었다. 이제는 럭셔리 브랜드는 물론 어패럴 메이커, 백화점, 셀렉트 숍까지 윤리적 생활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많은 패션 기업과 패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윤리적 생산과 소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⁴⁶⁾ 제3국의 노동제도에 대하여 공정거래를 지향하고 소비자의 1구매 · 1기부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윤리적 패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0, 21, 22, 23)

이와 같이 윤리적 패션의 형성은 1960년대 후반 산업사회의 이기와 물질만능에 저항하는 히피패션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젊은 세대에서 시작된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핑크 패션에서 1980년대의 현대인의 자유롭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한 그룬지 패션으로 연결되어, 1990년대에는 사회 전체의 공동선 등을 추구하는 자연 지향주의 에콜로지 패션을 거쳐 현재의 윤리적 패션으로 발전하여 왔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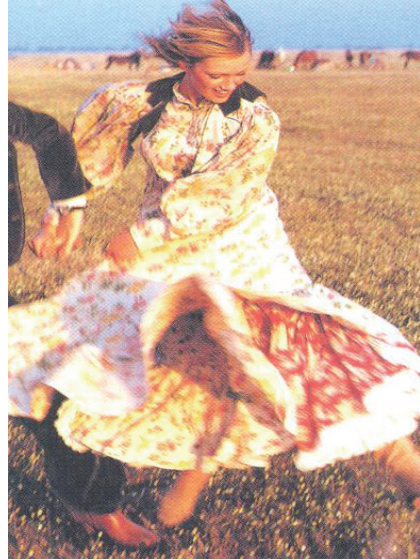
46) 삼성디자인넷(2010, 7), "Social Contents Shop 의 등장," 자료검색일: 2011, 5.11,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News/GlobalInfo/HotIssues/Content.asp?an=408>

<표 1> 윤리적 패션의 형성배경

연도	패션	특징
1960년 후반 - 1970년대	히피 패션	산업사회의 물질문명과 인조섬유로 대량 생산된 의복에 대한 반작용으로 몸치장 따위에 무관심하며 현대문명의 이기와 물질만능에 저항을 나타내는 패션. 산업사회의 물질문명과 인조섬유로 대량 생산된 의복에 대한 반작용으로 낡고 오래된 중고 의류와 화려하면서도 경박한 짚시폰의 드레스를 착용함.
1970년 후반 - 1980년대 초반	핑크 패션	런던 록밴드들의 무대의상에서 시작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패션. 실생활의 사소한 물건들의 장신구, 고무나 플라스틱 텍제 팬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플라스틱 네트 셔츠, 메시지가 프린트된 티셔츠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패션을 착용함.
1980년대 - 1990년대 초반	그린지 패션	정통 하이패션과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로 핑크록 스타일에서 시작한 초라하고 지저분한 느낌의 구속받지않고 자유롭게 입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한 패션. 여러 가지 스타일을 섞거나 반대되는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함을 표현하고 특별한 형식없이 자연스럽게 착용함.
1990년대 - 2000년대 초반	에콜로지 패션	사회 생태학적 균형이라는 개념 아래 환경 보존과 개선의 측면과 삶의 질 향상, 사회 전체의 공동선 지향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연 지향적인 패션. 천연 섬유 소재 사용, 자유스러움과 편안함, 활동성을 강조, 핸드 메이드 작품, 크링클 주름의 패션을 착용함.
현재	윤리적 패션	환경의식과 책임감이 결부되어 파생된 뉴 에콜로지(New Ecology)의 생산과 소비 등의 전 분야에 걸친 자원 순화적 패션. 다양한 환경 친화적 패션 소재의 사용과 자원을 순환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 걸친 업사이클링을 통한 재디자인 패션을 착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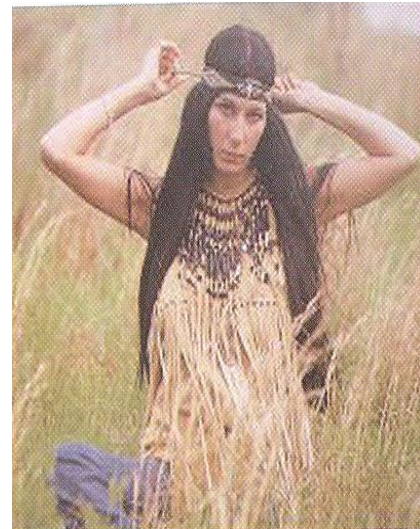
<그림 1>기업윤리에 어긋난
나이키의 아동노동
(출처: 윤리구매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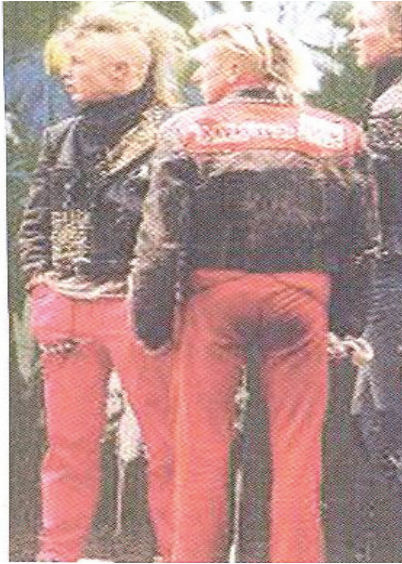
<그림 2>1973년 겐조의
히피 스타일
(출처: Look,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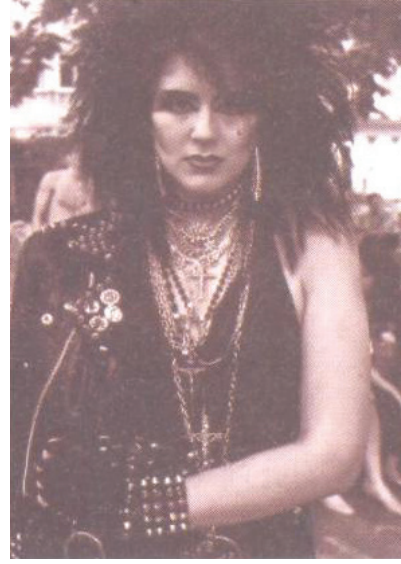
<그림 3>화려한 집시 스커트의
히피 패션
(출처: 패션과 문화, p. 132)



<그림 4>1960년대 후반
프런지장식의 히피 패션
(출처: 패션과 문화,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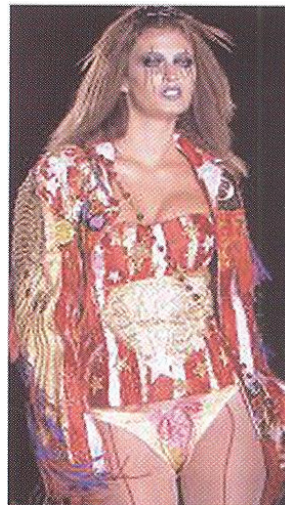
<그림 5>1970년대
 펑크 스타일의 연출
 (출처: 패션과 문화.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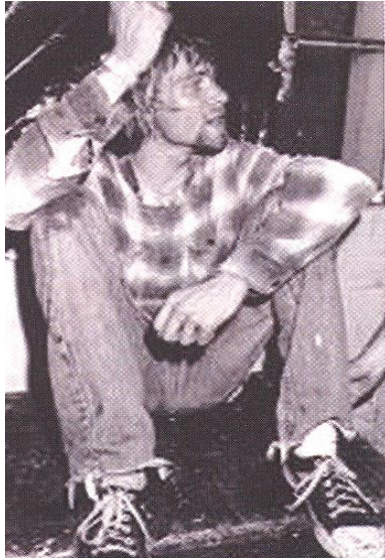
<그림 6>디테일로
 표현한 펑크
 (출처: 패션산업과 정보 p.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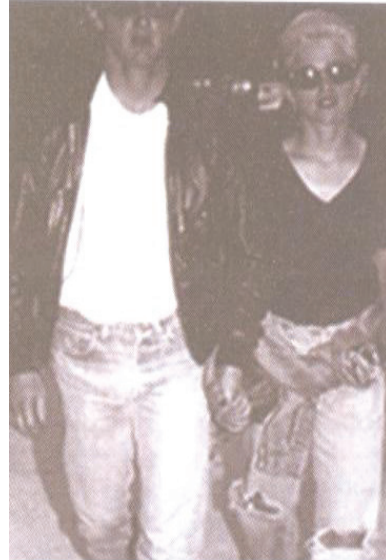
<그림 7>디자이너의
 펑크 패션 실현
 (출처: 패션과 문화.
 p. 131)



<그림 8>런웨이에서
 연출한 펑크 패션
 (출처: 패션과 문화.
 p.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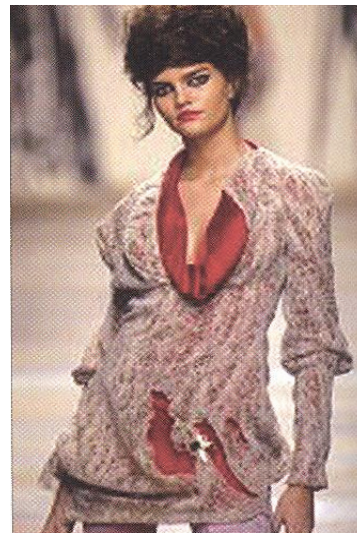
<그림 9>그런지 패션의 상징
(출처: 패션과 문화. p.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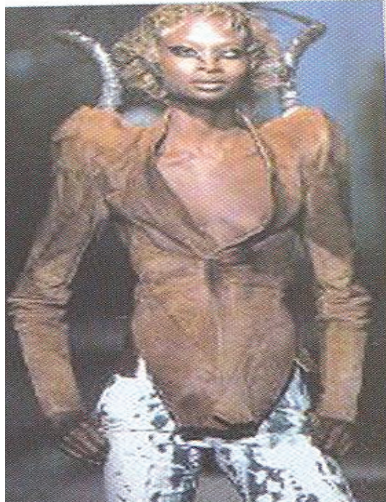
<그림 10>마돈나의
그런지 패션
(출처: 패션산업과 정보 p. 174)



<그림 11>런웨이에서 나타난
그런지 패션
(출처: 패션과 문화. p. 116)



<그림 12>런웨이에서
연출된 그런지 패션
(출처: 패션과 문화. p. 116)



<그림 13>알렉산더맥퀸의
원시적 에콜로지 패션
(출처: 패션과 문화 p. 178)



<그림 14>배수정의
한지·닥섬유의
에콜로지 패션
(출처: 패션과 문화 p. 178)



<그림 15>후세인 살라얀의
에어메일드레스
(출처: Look p. 198)



<그림 16> 후세인 사라얀의
리버시블 디자인
(출처: Look, p. 197)



<그림 17>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이경재 드레스
(출처: www.orgdot.co.kr)



<그림 18> 까르뜨니트의
한지 니트 디자인
(출처: www.carteknit.co.kr)



<그림 19> 알렉산더맥퀸의
글러브 재사용 패션
(출처: *eco-chic*, p. 173)



<그림 20>인도와의
공정거래
(출처: www.fairtrade.gru.com)



<그림 21>공정거래
국내 최초 브랜드 '그루'
(출처: www.fairtradegru.com)



<그림 22>제3국에 신발이
기부되는 'TOMS'
(출처: www.toms.com)

2. 윤리적 패션의 특성

윤리적 패션은 그동안 에코 패션, 그린 패션, 슬로우 패션, 친환경 패션 등 다양한 표현으로 진행된 여러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어로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친환경 소재의 사용과 그 제작방식의 개발, 재활용, 공정무역,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민속의상에 관한 관심 등 다채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⁴⁷⁾

윤리적 패션의 특성을 분류하는데 있어 선행연구에서 송지예(2008)⁴⁸⁾는 에코-럭셔리의 특성으로 ‘단순성, 다목적성, 자연성, 전통성’으로 나누었으며, 이은영(2010)⁴⁹⁾은 현대 에코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자연성, 전통성, 안전성, 단순성, 다기능성’으로 분류하고, ‘친환경 소재, 색채’로 에코패션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문정(2003)⁵⁰⁾은 에코디자인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의 감축, 수명의 연장과 재사용, 자원의 재활용’을 제시하고, 에코디자인의 표현양식을 ‘표현기법(형태의 재구성·스타일의 재구성·소재의 재디자인·형태의 해체), 소재와 색상’으로 나누었으며, 김희진(2010)⁵¹⁾은 윤리적 패션 요소의 이해에 대하여 ‘재료와 생산과정, 사용 및 폐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장남경 외(2007)⁵²⁾의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디자인을 세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그린디자인, 자연적 디자인,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47) 황복주(2009), 「패션의 윤리학-착하게 입자 '경기도 미술관 크로스 장르전」, 경기: 경기도 미술관, p. 10.

48) 송지예(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코-럭셔리의 조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49) 이은영(2010), op. cit..

50) 서문정(2003), op. cit..

51) 김희진(2010), “윤리적 패션 확대를 위한 디자인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52) 장남경·김윤정·주잔나(2007), 패션산업에서의 친환경 디자인,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ol. 15. No. 6, pp. 952-964.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코패션에서 발
전한 윤리적 패션의 특성에 대하여 ‘형태의 재구성·스타일의 다목적성·소재
의 재디자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형태의 재구성

윤리적 패션의 첫 번째 디자인적 특성을 형태의 재구성이다.

형태(Form)는 색과 함께 대상의 시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감성적 요소를
말하며⁵³⁾ 구성(Construction)은 예술작품에서 작품을 이루는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전체적인 통일을 주는 방법으로 모아서(con) 조립(struct)한다는
뜻을 가진다.⁵⁴⁾

형태 구성의 기법 중 아상블라주(asssemblage) 기법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는 ‘조합, 조합물, 집합, 또는 굵어모으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주로 일상적인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를 굵어모아 작품을 구성
하는 것⁵⁵⁾으로 패치워크, 플라주 등이 해당된다. 패치워크는 미국으로 건너
간 청교도들의 신대륙 생활이 시작되자 옷이 남아 못쓰게 되어 헌옷 조각
으로 천을 덧대거나 이어붙이는 것⁵⁶⁾이고 플라주는 풀로 붙인다는 뜻으로
입체파 화가들이 화폭에 신문지나 악보 등의 인쇄물을 붙이는 것에서 유래
되어⁵⁷⁾ 패션에서는 여러 원단이나 의복을 겹쳐 구성한 형태로 재활용의 한

53) 네이버지식사전, 자료검색일: 2011, 4.13,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93140>

54) 두산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1, 4.13, 출처: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4790

55) 브리태니커백과사전편집위원회(2002),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14권」.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회사, pp. 274-275.

56)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1, 4.13,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80869>

57) 두산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1, 4.13, 출처: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02256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상블라주 기법은 형태를 재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쓰지 않는 원단이나 버려진 패션 쓰레기를 모아 새로운 상품으로 재구성 할 수 있다.(그림 23, 24, 25)

형태의 재구성을 통하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사용 후 버리는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자원, 최소한의 제작과정을 통하여 윤리적 패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다.

천연섬유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섬유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데, 섬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여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소비되는 자원낭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형태의 재구성을 통한 신기술을 패션산업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⁵⁸⁾(그림 26)

<그림 27>은 패션 재활용품 전문 브랜드 ‘리블랭크’의 디자인으로 안 입는 옷을 맡기면 직접 스타일리시한 가방으로 리폼을 해주는 ‘클로젯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완성된 가방에는 가방 제작 완성 날짜와 영문 이름이 새겨진 개인 레이블을 함께 제공한다.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는 네덜란드 브랜드인 ‘쿠이치’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면화로 만들어진 의류를 제조하는 윤리적 패션 데님 브랜드이다.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데님의 화학적 워싱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류를 제작하며 형태의 재구성을 통하여 윤리적 패션을 실현하고 있다.(그림 28)

<그림 29>와 <그림 30>은 1993년 그래픽디자이너 형제인 마커스

58) Michael Kininmonth , Organic Clothing.blog.com(2005. 4), 자료검색일: 2011. 5.4, 출처: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en&u=http://organicclothing.blogs.com/my_weblog/2005/11/tencel_sustaina.html&ei=SNL0TandGc3ZiALTgqCZBw&sa=X&oi=translate&ct=result&resnum=14&ved=0CJQBEO4BMA0&prev=/search%3Fq%3Dtencel%26hl%3Dko%26newwindow%3D1%26sa%3DX%26rlz%3D1R2ADRA_koKR409%26biw%3D1131%26bih%3D718%26prmd%3Ddivsul

(Markus)와 다니엘 프라이탁(Daniel Freitag)이 제작한 가방의 재료로 버려진 방수팩 트럭용 덮개와 자동차 안전벨트 끈과 자전거의 고무튜브를 사용하고, 재단과 봉제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는 재활용 상품이라는 것에 그 가치가 있고, 전 세계에 유일한 디자인이라는 것에 또 다시 가치가 부여된다.

2) 스타일의 다목적성

개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적인 가치관에 어우러져 유틸리티 패션 디자인의 경향도 독특하고 재미난 아이디어로 신선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이 나타난다. 일부는 디자인성에 비하여 실용성과 활용도가 떨어져 주로 오픈쿠뛰르 컬렉션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구성되어진 보편화 된 아이템을 재구성하여 스타일을 창출하는 것으로 트랜스포머블 디자인(Transformable Design)을 들 수 있다. 트랜스포머블의 명사형인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형, 변모, 변질, 변화’의 사전적 정의를 가지며, 하나의 아이템이 어떠한 목적에 따라 변형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⁵⁹⁾

다기능, 다목적성을 가지는 의복으로 의복 내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양면을 사용하여 한 벌의 옷으로 두벌의 효과를 얻는 ‘리버서블(reversible)’ 디자인, 소매를 탈부착 할 수 있는 디자인, 긴 바지에서 반바지로 길이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 또는 칼라를 탈부착 할 수 있는 패션 제품 등이 있다. 또한, 의복 외로 분리되어서 우비가 가방으로 바뀌거나, 모자가 달린 망토가 뼈대를 이용하여 텐트가 되는 경우 등의 경우가 이에 해

59) 네이버사전, 자료검색일: 2011, 5.2, 출처: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a1572c1e1d914939b9d4aa62a80d5c36>

당된다.⁶⁰⁾(그림 31, 32)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매우 빠르고 많은 양의 정보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모든 영역으로 인하여 지치게 함을 반대하며 웰빙과 로하스 문화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트렌드는 패션의 영역에도 그 의미를 확대하였다. 인위적인 꾸며짐이 없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상은 패션의 레이어링으로 나타난다. 월스트리트, 타임지 등 해외 유명저널과 각종 트렌드 정보업체들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시즌리스(seasonless), 노트렌드(trans-seasonal), 연중의상(all-year)의 용어를 발표하며 미래 패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극심한 이상 기후, 기후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⁶¹⁾ 이러한 기후의 영향 역시 날씨에 적응하면서 윤리적 패션의 표현으로 스타일의 재구성은 현대 사회의 현상에 맞추어 레이어드 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스타일의 표현방식으로는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사용될 수 있고 최근의 많은 브랜드에서 에코패션에 대한 인식의 디자인 기법으로는 주름 기법이나 구김기법을 통하여 구속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표현하고 직선 등의 수직적인 디자인이 아닌 불규칙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주름기법을 통하여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인체의 볼륨이나 움직임에 주목하여 옷의 형태는 입는 사람의 인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옷을 입었을 땐 인체의 자유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⁶²⁾(그림 33, 34)

국내에서는 ‘에코파티메아리’라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소속된 재활용

60) 이유리(2009), op. cit., p. 106.

61) 삼성디자인넷(2008, 3.7), “기후변화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 자료검색일: 2011, 5.2,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Report/content.asp?an=508>

62) 이은영(2010), op. cit., p. 73.

디자인 사업부이자 생산되는 브랜드가 가장 활발하게 재사용 운동을 하고 있고, 나아가 재제조 운동으로 스타일의 재구성을 통하여 쓸모있는 구매를 권장하고,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수공 생산 방식으로 영세한 수공업 분야의 활성화를 돕는다.⁶³⁾

3) 소재의 재디자인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원으로, 쓰레기와 자원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의 쓰레기는 포화상태이고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세계의 생태학적 균형이 깨지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생태학적 불균형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제는 쓰레기를 자원화하거나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⁶⁴⁾

재디자인(Redesign)은 ‘다시, 한번 더’ 를 의미하는 ‘RE-’ 와 ‘디자인(Design)’의 합성어로 이미 상품으로 완성된 제품의 재이용, 재가공하는 소재 재활용, 산업 폐기물의 재자원화까지 자원의 순환 이용 모든 분야에 걸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롭게 창조해내는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목적으로 에너지 소모와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⁶⁵⁾ 옷 물려 입거나 낡은 느낌을 표현하는 구제, 빈티지 패션을 위한 재활용 패션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는 멋지고 개성 있는 브랜드 상품으로 새로이 제작하되 쓸모가 없어진 물건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제품 이상의 가치가 더해져 쓰던 물건이 아닌

63) 에코메아리 회사소개, 자료검색일: 2011, 4.11, 출처: <http://www.mearry.com>

64) Victor Papanek(2008), op.cit., p. 61.

65) 배지영(2007), 친환경적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5.

신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⁶⁶⁾

재디자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재사용, 재활용, 재회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흔히 재활용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연료, 열 및 전기)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사용(Reuse)은 현 상태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타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주류 병, 청량음료 병의 재사용, 이면지의 메모지 이용, 폐품을 이용한 공작물 제작, 리필 용기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⁶⁷⁾ 반면에 재활용(Recycle)은 선별, 세척, 건조, 정제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이를 원래의 용도 또는 타 용도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재생종이 생산,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합성수지 제품 생산, 폐지를 이용한 섬유개발 등을 들 수 있다.⁶⁸⁾ 그리고 재회수(Recovery)는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필요 물질만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써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⁶⁹⁾

폐자재,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고 하는 자원 다소비형 사회의 메카니즘에 의한 것으로 유용한 자원을 보전하고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계 보호에 대한 노력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자각을 가져왔으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운동인 5R운동은 재활용(Recycling), 리필(Refill), 재수선

66)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2008), 「Hot trend 40」, 서울: 한국트렌드연구소, p. 275.

67) 이형구(1994), 「21세기 경제 정책의 대전환」, 서울: 고려원, p. 35

68) 김지희(2009), 벽지 재활용을 이용한 직물 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69) 과학용어사전, '자료검색일 : 2011, 4.11, 출처:

<http://www.scienceall.com/dictionary/dictionary.sca?todo=scienceTermsView&classid=&articleid=257712&bbsid=619&popissue=>

(Reform), 대여(Rental), 중고품 사용(Reusing)을 가리키는 용어⁷⁰⁾로 큰 의미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관점이 포함된 친환경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각 기업들은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품의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없앤다는 의미의 순환 개념이 그 바탕에 있다.⁷¹⁾(그림 35)

<그림 36>은 프랑스의 디자이너 카텔 게레바(Katell Gelebart)의 작품으로 쉽게 버려지는 폐기물이 잠재적 가치의 자원임을 강조하며 식품 포장 재료를 이용하여 컬러풀한 색감을 의상에 그대로 살려 내었다. 이러한 재디자인을 통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REDUCE의 개념은 물론, 재사용의 REUSE와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RECYCLE까지 윤리적 패션의 실천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디자이너 게리 하비(Gary Harvey)는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여 오뜨 꾸뛰르를 제작하는 영국 디자이너로 “세상에 좋은 것이 보기에도 좋다”라는 이념으로 친환경 의류 제작에 앞장서고 있다. 버버리 트렌치 코트나 리바이스 501청바지, 파이낸셜지로 만든 디자인 등 유명한 의상 아이템을 재활용한 드레스를 선보이며 매 시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윤리적 패션의 실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디자인의 유형을 보여준다.(그림 37, 38)

이를 통하여 앞으로 재디자인화 할 수 있는 자원이란 지금까지 버려졌던 쓰레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쓰레기의 양과 그 종류만큼 재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그림 39, 40)

70) 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1, 4.11,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44484>

71) 이민호(2006), op. cit., p. 45.

이와 같이 한낱 쓰레기로 불과할 수 있는 자원을 디자인하여 다시 변형한 작품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윤리적 패션의 사고방식에 의한 의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환경과 패션의 공존은 폐기된 자원과 새로운 디자인이 만나 재탄생하게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에 브랜드 전략 과제로 이슈가 되어 소비자들은 불경기에도 윤리적, 환경적 문제를 고려한 구매를 하며 최근 Ethical Clothing Report에 의하면 영국의 소비자들 특히, 젊은 소비층에서 이전보다 윤리적인 소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어 도덕적인 생산이 중요하다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⁷²⁾ 이렇듯 재디자인과 관련된 개념과 의미는 여러 단어나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분리, 분해와 쓰레기를 줄이는 일, 자원을 재사용하는 일과 재자원화를 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일과 수리, 수선하는 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72) 삼성디자인넷(2011, 5), “CSR Matters Prerequisite”, 자료검색일: 2011, 5.11,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Report/content.asp?an=619>

<표 2> 재디자인의 개념 및 의미

개념	의미
REFINE	사용이 끝난 제품의 분리, 분해
REDUCE	쓰레기를 줄이는 일
REUSE	재사용
RECYCLE	(좁은 의미로) 폐기물의 재자원화
RECONVERT TO ENERGY	폐기물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회수
REPAIR, REFORM	수리, 수선(건축물의 보수, 개수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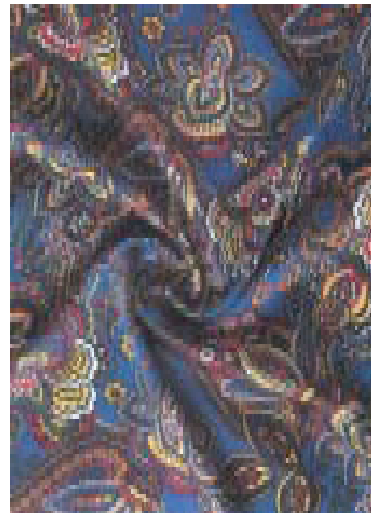
<그림 23>재사용디자인의
수트 롤 백팩
(출처: www.mearry.com)



<그림 24>양복주머니를
재구성한 토트백
(출처: www.mearry.com)



<그림 26>안전벨트로
만든 필통
(출처: www.mearry.com)



<그림 25>영국 코루톨드사의
텐슬(Tencel)
(출처: Organic Clothing.blo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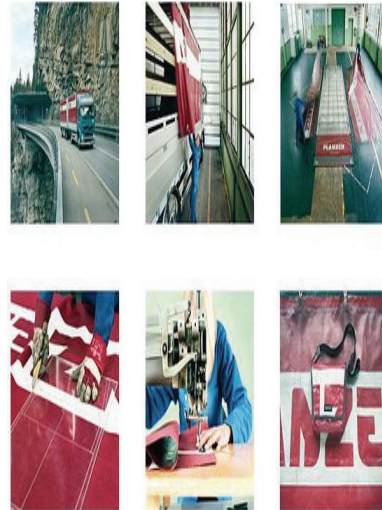
<그림 27>리블랭크의
‘클로젯프로젝트’
(출처: www.reblank.com)



<그림 28>윤리적 데님브랜드
‘쿠이치’
(출처: www.kuyichi.com)



<그림 29>프라이탁의
트럭덱개로 만든 가방
(출처 <http://www.writerkimpe.kr/372>)



<그림 30>프라이탁의
공정과정
(출처: <http://www.writerkimpe.kr/372>)



<그림 31> '아비쉬 아롬 거'의
08년 S/S 컬렉션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47)



<그림 32> '리타 나르디'의
08년 S/S 컬렉션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195)



<그림 33> 인체의 자유를
나타낸 디자인
(출처: www.isseymiyake.co.jp)



<그림 34> '이세이미야케'의
주름 응용 디자인
(출처: www.isseymiyake.co.jp)



<그림 35>자투리 천을 모아 만든 양말
(출처: www.mearrly.com)



<그림 36>카텔 게레바의 친환경 패션 라인
(출처: www.artdecodesign.typepad.com)



<그림 38>게리 하비의 파이낸셜지로 만든 드레스
(출처: www.recyclerunway.com)



<그림 37>게리 하비의 과자봉지로 만든 드레스
(출처: www.recyclerunway.com)



<그림 39> '아비쉬 아롬 거'의
08년 S/S 컬렉션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47)



<그림 40> 버려지는 전단지를
접어 붙인 드레스
(출처: www.recyclerunway.com)

Ⅲ.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에 대한 고찰

1.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마틴 마르지엘라(54)는 벨기에 루팡(Louvain)태생으로 1978년 ‘앤트워프 로얄 아카데미(Antwerp Royal Academy of Fine Arts)’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다. 독창적이고 전위적인 그의 패션 철학은 1983년 황금 물레상에 이어 1984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1952~)의 어시스턴트로 스카우트 되었고, 1988년 파리에서 제니 마렌(Jenny Meirens)과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여성복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디자인 활동을 시작하였다.⁷³⁾

정기적인 패션쇼는 물론, 전시회도 꾸준히 개최해왔다. 프랑스 파리의 의상 장식박물관인 팔레 가랑라에서의 전시를 필두로, 파리 근대시립미술관, 뉴욕의 아트 레지던스기관인 PS1전시관, 이탈리아 페치미술관, 뉴욕의 FIT 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전시를 가진바 있다. 또 파리 팔레 갈리에라, 프랑스국립 현대미술재단, 마르세이유 의상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FIT박물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중앙박물관, 브루클린박물관, 교토복식문화연구재단 등은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고 있다.⁷⁴⁾

마르지엘라는 패션을 의미있는 철학적 존재로서 그리고 창조적 결과물로써 생각한 아방가르드(avant-garde)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비록 그

73)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2009), 『Masion Martin Margiela』, Newyork: Rizzoli, pp. 360-361.

74) 김영란기자(2010, 4.4), “패션이 곧 아트임을 보여주는 마르지엘라의 아티저널”,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11, 5.11, 출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71108000276>

가 거부할 지라도 해체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⁷⁵⁾

마틴 마르지엘라에게 뉴 룩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그의 작품을 통하여 해체와 재구성의 양면을 찾아볼 수 있다. 재활용 의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그는 매 시즌 컬렉션에서도 도자기 파편이라든가 트럼프, 가발을 이용한 재킷, 스키글러브로 만든 블루종, 여름 샌들의 갑피를 짜깁기한 재킷, 인조진주와 비즈로 만든 재킷 등을 아이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그는 1989년 브랜드의 시작 이후 세계에서 수집한 낡은 오브제와 의류, 소재, 재활용품으로 파리 아뜰리에에서 수작업을 통해 새롭게 재디자인하여 ‘아티저널 컬렉션(Artisanal Collection)’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아이템을 변형시키는 데서 오는 각 단계의 복잡함과 특별함 덕분에 생산되는 아이템의 수량이 제한되어 희소성이 있는 작품들로 라벨 ‘0’으로 표기되며 파리 오뜨 꾸뛰르 컬렉션에서 선보였다.⁷⁶⁾

많은 브랜드에서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한정판 캡슐 컬렉션(Capsule Collection)을 선보이고 있는 트렌드도 마틴 마르지엘라가 시작하였다. 캡슐 컬렉션은 동일한 컨셉을 기반으로 디자이너의 6-12가지 아이템을 소량 생산해 교차조합 코디가 가능한 의류 라인으로 마틴 마르지엘라의 컬렉션은 재활용된 아이템을 통해 새로운 미학을 발견하기 위해 선보인 라인들이 주를 이룬다.⁷⁷⁾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틴 마르지엘라는 윤리적 패션을 지향해왔다.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 중에 동물 가죽을 소재로 한 재킷은 재활용된 것으로

75) Charlotte Seeling(2010), 「Fashion」, Potsdam: Ullmann, p. 391.

76)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2009), op. cit., pp. 360-361.

77) 이은영(2010), op. cit., pp. 80-84.

로 버려진 가죽을 사용하여 빈티지스러운 새로운 디자인의 재킷으로 탈바꿈하여 패션쇼에 선보였다. 기존의 천연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오프 솔더탑과 팔을 따라 과장되어진 부분은 재활용되어진 비닐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어깨부분을 강조한 조형물을 의류에 장착하였다. 그리고 조각되어진 빈티지 가죽들의 패치워크를 통해 심플한 실루엣을 잘 표현하는 등 광범위한 윤리적 패션의 디자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경향

현대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세계 패션의 흐름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진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이상희(2001)⁷⁸⁾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경향을 ‘해체주의, 리사이클링 아트, 구조주의, 실험주의’로 구분하였고, 복식의 조형적 특성은 ‘형태, 재질, 색상, 제작기법, 트리밍 및 기타’로 나누었다. 박수진(2005)⁷⁹⁾은 ‘패션과 신체의 상호관계성의 부재표현, 의복의 관습적 형식 해체, 성의 모호함, 우연의 미 창출’로 분류하였다. 곽혜영(2009)⁸⁰⁾은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 소재에 의한 측면의 미, 강렬한 스페인 취향’으로 나누었다. 또한, 신하나(2010)⁸¹⁾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비교에서 ‘노출, 실루엣, 장식, 메이크업’로 나누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78) 이상희(2001), “현대 벨기에 패션디자이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79) 박수진(2005), “포스트모던 알레고리 이미지패션의 다의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80) 곽혜영(2009), “발렌시아가 패션디자인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81) 신하나-외 1인, “존 갈리아노와 마르탱 마르지엘라 패션에 표현된 여성의 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60, No. 7, p. 26.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 · 리사이클링 아트 · 경계의 모호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

복식에서 해체주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 3월 ‘디테일즈(details)’잡지에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이 파리에서 열렸던 ’90 S/S 마틴 마르지엘라의 쇼를 보고 최초로 의복에 사용한 것으로 마틴 마르지엘라를 ‘파괴주의자’라고 부르게 되었다.⁸²⁾ 그러나 마르지엘라는 파괴적 패션(destroy fashion)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으며 그가 오래된 옷을 자르고 해체시키는 것은 다른 형태로 그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나 자신은 복구라는 개념을 사랑한다. 거부당하고 헤어진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 한다.⁸³⁾

그는 오래되고 버려진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창조적 영감을 실현하고 있다. 해체주의자로 언급되고 있으나, 해체하기 보다는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낸 작품은 혁신적이고 철학적이며 역설적이기까지 하다.⁸⁴⁾(그림 41)

<그림 42>는 마르지엘라의 패션 중 새로운 형태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같은 패턴, 같은 색상의 원피스를 여러 겹을 겹쳐서 구성을 표현한 것으로 원피스의 본래 형태로의 구성이 아닌 언발란스컷의 디테일로 장식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마르지엘라는 형태를 구성하는데 있어 지난 20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혁신

82) 정용교 (1991),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 54.

83) Yale University Press(2006), op. cit., p. 163.

84) 윤지영(2009), "Christian Dior 과 Martin Margiela 패션 작품 도상에 대한 비교 연구", 복식, Vol. 59, No. 5, p. 124.

적인 디자이너 중 한명으로, 의복에 볼륨을 주거나 평면화 하거나 하는 등의 형태를 구성함에 있어 다른 디자이너에 비하여 극단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⁸⁵⁾(그림 43)

2) 리사이클링 아트

재활용품의 디자인은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만 한다.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누런 빛깔의 재생용지의 색만 떠오르던 과거와는 달리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변하여 환경을 위한 소비의지가 높아지고 있고,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을 넘어 상품으로서의 매력만 줄 수 있다면 재활용품 시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⁸⁶⁾

초기의 소박하고 서민적이었던 재활용품의 디자인이 점차 경쟁적인 소비구도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특정한 환경운동가 같은 소비자를 위함이 아니라 그 외의 다수인 일반인들로부터 유행에 민감한 집단에 이르기 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을 위한 디자인은 이제 그냥 간과하고 넘어 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마르지엘라 작품에서 사용된 리사이클링은 산업사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자는 정크아트(junk art)에서 구체화 되어 아상블라주 기법으로 풀라주, 패치워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었다.⁸⁷⁾ 절단과 다트를 통한 조각의 형태 변형으로 직물이외에 피혁, 종이, 비닐, 플라스틱, 금속판, 등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고, 하나의 복식에 여러 개의 옷을 겹치거나 분해·조합하는 등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창조적인 소재활용의 범위를 넓혔다.

85)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2009), op. cit., p. 423.

86)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2008), op.cit., p. 274.

87) 권정원(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 패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 1.

<그림 44>의 경우 버려진 혹은 입지 않는 셔츠를 소매의 커프스 부분과 칼라 부분의 네크라인에 두르고 봉제함으로써 레이어링의 효과를 주고, 버려진 재킷을 분해하여 그 원단을 재가봉하여 바지로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그림 45>는 의복제작 후 남은 원단을 엮어 구성한 재킷으로 가죽 제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원단을 재활용함으로 자원 폐기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독특한 디자인으로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림 46>의 경우 2008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주로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는 잡지를 분해하고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하여 섬유화 시키고 니트의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⁸⁸⁾ 종이로 만든 옷은 많은 디자이너들이 재활용의 관점에서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지만, 이 경우 코팅된 폐잡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으며 또한, 작품의 구성을 니트로 표현하여 리사이클링 디자인에 대한 선입견을 지울 수 있다.

마르지엘라에게 리사이클링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그의 작품을 통하여 해체와 재구성의 양면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나는 거부되거나 닳은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이제까지 안감으로만 사용된 소재를 재활용하고 주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새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옷을 입는 자유 또한 긍정적인 자유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⁸⁹⁾고 했으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브랜드 명을 표기하지 않는 라벨을 사용한다. 또한 끝처리가 되지 않은 솔기와, 모던한 실루엣, 겹과 속이 뒤바뀌어도 안의 소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등 기존 디자이너의 의상과는 다른 독특한 의상을 선보였다.⁹⁰⁾

88) Charlotte Seeling(2010), op. cit., p. 391.

89)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2009), op. cit., pp. 360-361.

90) 이은영(2010), op. cit., pp. 80-84.

3) 경계의 모호성

모호성이란 ‘anonymity’, ‘ambiguity’ 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거리가 먼 지시 내용을 의미하거나 또는 둘이나 그 이상의 서로 다른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나 표현을 이르는 말⁹¹⁾이며, 집단의 거대화, 매스미디어의 발달, 분업의 세분화, 사회적 이동이나 격화로 인하여 사회의 성원은 구성의 톱니바퀴로서, 부득이 획일적 행동양식을 취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애매성의 일곱가지 유형(the seven types of ambiguity,1930)’의 저자 윌리엄 엠프슨(William Empson)은 애매성에 대해 “나의 말에 대해서 회미한 다른 의미를 상기시키는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⁹²⁾

왜곡, 변형, 해체, 교란, 결집 등을 활용하여 구성되며 바이어스 커팅이나 비대칭적인 커팅과 구성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성의 이분법적인 해체현상으로 인한 유니섹스룩의 등장으로 성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본래 패션산업은 필요와 요구 사이의 상관관계 없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유행의 창조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션산업은 실용정보다는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망에 기인하기 때문에 끊임 없는 변화를 지향하고 기존에 생산된 제품은 새로운 유행상품으로 인해 지속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조작한 경박한 미적현상이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아왔다.⁹³⁾

마르지엘라는 유니섹스룩 같은 의복착용의 경계에 대한 모호 뿐만 아니라 의복제작을 위한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경계성을 보이지 않는다. 작

91) 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1, 5.11,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41898>

92) 네이버지식백과, 자료검색일: 2011, 5.11,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9943>

93) mendes, Valerie(2003), 김정은 역,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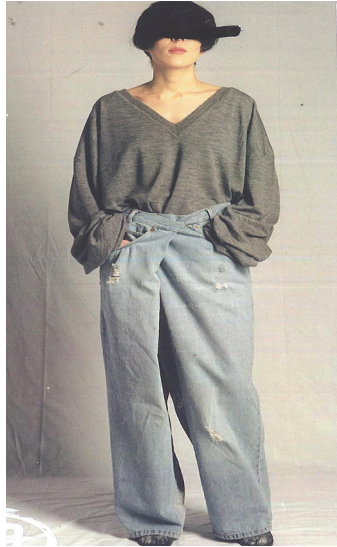
품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 소재의 선택은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로 소재의 특성에 의하여 디자인의 특성이 좌우되므로 복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소재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지엘라는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모호한 경계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47>은 일반적인 원단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재킷으로 소재에 있어서는 복식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제작으로 볼 수 있으나 의복의 실루엣이나 페미닌적인 디테일, 다트와 재킷의 라인 등을 통하여 유니섹스적인 성의 경계의 모호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림 48>은 <그림 47>과는 반대로 여성의 복식에서 유니섹스룩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원단을 소재로 사용하였고 미니멀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매니쉬한 셔츠로 마르지엘라의 특징인 비대칭과 비대칭적인 구성을 찾을 수 있다.

위의 두 그림과는 다르게 소재의 특성에 대하여 디자이너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나타난다. 의복재료는 가볍고,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또한 봉제가 용이해야 하며 그 재료에는 직물, 편성물, 레이스 등의 옷감과 피혁, 모피, 필름, 폼, 펠트, 부직포 등⁹⁴)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마르지엘라는 캔뚜껑, 레코드판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작품을 재디자인하였다.(그림 49, 50)

94) 강순희, 서미아(2006), 「의복의 입체구성 이론과 실기」, 서울: 교문사, p. 217.



<그림 41>형태의 재구성을
통한 바지 디자인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169)



<그림 42>기본 원피스
형태를 벗어난 디자인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168)



<그림 43>의상의 볼륨을
극대화한 디자인
(출처: Atlas Fashion Designer,
p. 423)



<그림 44>재킷 봉제
바지 디자인
(출처: Atlas Fashion Designer,
p. 420)



<그림 45>쓰고 남은 원단을
 엮어 구성한 재킷
 (출처: Martin Margiela, p. 340)



<그림 46>폐잡지의
 리사이클링 디자인
 (출처: Eco-chic, p.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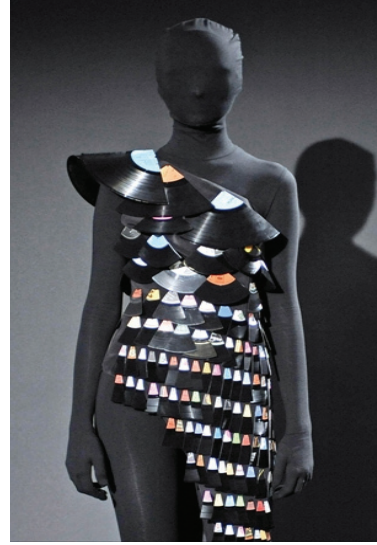
<그림 48>성의 모호한
 경계성의 페미닌 재킷
 (출처: Firstviewkorea.com)



<그림 47>모호한 성의
 매니쉬한 셔츠
 (출처: Firstviewkorea.com)



<그림 49> 병뚜껑을 소재로
활용한 베스트
(출처: Eco-chic, p. 164)



<그림 50> 레코드판으로
제작한 드레스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43)

IV.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

본 IV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윤리적 특성을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형태의 재구성

윤리적 패션의 형태의 재구성 요소는 마르지엘라 작품의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와 리사이클링 아트와 연관지을 수 있다. 마르지엘라는 복식을 ‘인체에 설치되는 건축물’로 생각하고 복식 제작 과정과 구조적 메커니즘 부분에 있어 건축에 대한 연구를 하였던 디자이너⁹⁵⁾로 작품을 통하여 구조적 형태의 구성을 표현한다. 마르지엘라의 작품제작에 있어 형태의 재구성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해체주의로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마르지엘라 본인은 작품의 재구성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마르지엘라의 작품 중 동양의 침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재킷의 패턴을 베게와 방석에 적용하여 구성한 작품이다. 이미 구성되어 제작된 상품을 선택하여 그 본래의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새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패턴을 정확하게 구성하여 본래의 것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것으로 이는 마르지엘라의 작품 경향 중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오리엔탈 침구류를 재사용했다는 점에서 리사이클링 아트적 특성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마르지엘라는 재활용, 재사용에 대하여 뚜렷한 작품 철학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큰 문제로 폐쓰레기의 증가를 걱정하고 이를 위하여 매년

95)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2009), op. cit., pp. 20-21.

S/S 시즌의 컬렉션에 재구성된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⁹⁶⁾ 이러한 마르지엘라의 철학은 작품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재사용의 의미를 알리기 위하여 본래의 형태를 훼손시키거나 크게 변형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형태를 재구성하여 두 형태 모두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림 53, 54)

<그림 55>와 <그림 56>의 경우는 버려진 여행용 가방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여행용 가방의 특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등 부분에는 손잡이에 화물 인증 표시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여행용 가방은 수납을 위한 주머니가 많이 있는 특징을 가지는데 마르지엘라 역시 그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본래 여행용 가방에 부착되어 있었을 주머니를 재킷의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57>과 <그림 58>은 각각 상의와 하의에서 가죽으로 제작한 클러치 가방을 발견할 수 있다. 가방의 형태를 변형시키기 보다 이를 유지하여 원래의 용도가 가방이었음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가방의 주머니를 그대로 활용하여 재킷의 주머니, 바지의 주머니로 변형하였다. 마르지엘라는 이외에도 이미 제작공정이 완료된 모피코트, 이미 형태를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모자 등의 소재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창조,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를 살펴 볼 수 있고, 마르지엘라 특유의 리사이클링 아트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59)

96) Ibid., pp. 20-21.



<그림 51>오리엔탈 침구류를
이용한 재킷, 앞
(출처: www.martinmargiela.com)



<그림 52>오리엔탈 침구류를
이용한 재킷, 뒤
(출처: www.martinmargiela.com)



<그림 53>다른 베스트를
재구성한 재킷, 앞
(출처: www.martinmargiela.com)



<그림 54>다른 베스트를
재구성한 재킷, 뒤
(출처: www.martinmargiela.com)



<그림 55>여행용 가방을
재구성한 재킷, 앞
(출처: Atlas Fashion Designer, p. 416)



<그림 56>여행용 가방을
재구성한 재킷, 뒤
(출처: Atlas Fashion Designer, p. 417)



<그림 57>클러치가방을
재구성한 재킷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8>클러치가방을
재구성한 부츠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9> 빈티지 모자를
재구성한 재킷
(출처: [www.maison
martinmargiela.com](http://www.maisonmartinmargiela.com))

2. 스타일의 다목적성

마틴 마르지엘라의 윤리적 패션의 특성 중 스타일의 다목적성은 마르지엘라의 작품 경향의 리사이클링 아트와 경계의 모호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단순한 하나의 스타일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면서 다목적성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맞게 변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다목적성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문화적 경계성을 고정 불변의 요소로 인식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와 단절된 고유한 문화, 순수한 특정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유동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사고가 필요한 시기이다.⁹⁷⁾ 이러한 개방성은 이질적인 것들 간의 경계를 없애고 상호연결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서로간의 수용과 혼합이 가능하도록 관계형성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열린 사고가 전제된다. 이 때 개방적인 태도와 사고는 이질적인 것, 낯선 것, 심지어는 적대적인 것과의 경계를 허물고 상식을 뛰어넘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준다.⁹⁸⁾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의 윤리적 재디자인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다목적성은 특정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실용적이며 유행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지속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6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걸이를 이어 베스트 형태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마르지엘라는 버려진 액세서리의 연결을 통하여 의복형태를 나타내는 디자인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이는 의복을 착용하고 그 위

97) 간호섭(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콜라베이션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 143.

98) 김연순(2008), 「하이브리드 컬처-현대문화와 하이브리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16.

에 장식적인 효과를 위하여 액세서리를 착용한다는 액세서리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벗어난 것으로 목걸이를 이용한 베스트 뿐 아니라, 벨트, 드레스 등으로 표현하였다.(그림 61, 62, 63)

여러 장의 셔츠를 겹쳐 하나의 드레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 64>와 <그림 65>의 디자인을 통하여 그의 작품구성에 대한 철학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셔츠와 드레스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의복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상호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패션 스타일의 목적성에 대하여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그림 66>의 경우 재킷의 라펠 부분을 스카프로 연결하는 디자인 전개로 스타일의 다목적성을 연출한 작품으로, 이를 통하여 재킷이라는 의복의 아이템과 스카프라는 액세서리 아이템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이러한 스타일의 다목적성이 드러나는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는 특히 개방적인 사고가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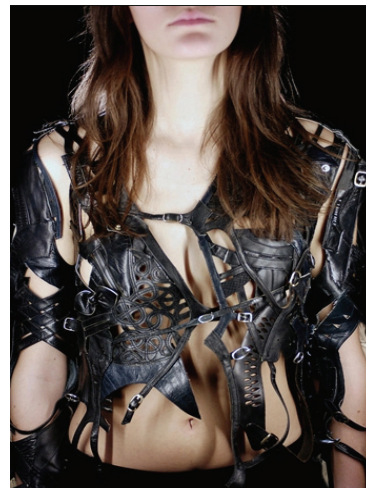
<그림 60> 목걸이를 이어
만든 베스트형태
(출처: Martin Margiela, p. 21)



<그림 61> 목걸이를 이어
만든 벨트형태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161)



<그림 62> 반지를 엮어 만든
드레스형태
(출처: Atlas of Fashion
Designer, p. 420)



<그림 63> 안장을 엮어 만든
베스트형태
(출처: Atlas of Fashion
Designer, p. 423)



<그림 64>여러 장의 셔츠를
 엮은 드레스, 앞
 (출처: Fashion, p. 161)



<그림 65>여러 장의 셔츠를
 엮은 드레스, 뒤
 (출처: Fashion, p. 161)



<그림 66>스카프를 연결한
 재킷의 다목적성
 (출처: Atlas of Fashion
 Designer. p. 421)

3. 소재의 재디자인

윤리적 패션의 특성 중 소재의 재디자인은 마르지엘라의 작품 경향과의 연관성에서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 리사이클링 아트, 경계의 모호성 모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작품의 재디자인에 있어 미술과 환경 및 종교와 공공 디자인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작품이 보여 지는데 이러한 소재의 사용에 있어 개발과 생산보다는 재활용적 측면에서 기존 소재의 재사용과 용도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로 형태를 재디자인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던 폐자재와 폐기물은 그 용도를 다하여 버려졌지만 그에 의하여 재디자인되어 예술적 가치로 새롭게 변형되었다.

마르지엘라의 특징인 재료의 한계를 초월한 형태와 소재 본래의 재질감의 보존이 소재의 재디자인이라는 윤리적 패션의 특성과 부합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 마르지엘라의 소재 선택에 있어서 의류제품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과 폐자재를 컬렉션 작품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산업과 패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그림 67>은 버려진 우산을 이용하여 제작한 재킷으로 소재의 재디자인 중 업사이클링과도 그 뜻을 같이 하여 윤리적 패션의 큰 영역에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물건의 형태나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재활용과는 다른 의미로서 부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거나 구성요소를 교체하거나 조립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디자인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⁹⁹⁾

<그림 68>과 <그림 69>의 작품을 살펴보면 축구공과 미러볼을 재디자인의 소재로 선택하였다. 이는 복식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재료로 축구공이나 미러볼은 본래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의류를 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먼저 축구공과 미러볼의 패턴을 분해하되 일부분은 이어져 있어 본래의 형태와 용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여 소재의 리사이클링을 통한 새로운 구조로의 형태 변형을 시도하되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그는 윤리적 패션을 표현하기 위하여 재디자인을 위한 소재로 다양한 재활용품을 선택하였다. <그림 70>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패턴이 있는 버려진 손수건의 원단을 그대로 활용하여 셔츠의 디자인으로 활용하였고, <그림 71>의 경우는 오래되고 낡은 카드를 인체의 굴곡에 맞게 연결한 뒤 형태를 고정하여 베스트의 형태로 재디자인하였다.

<그림 72>에서는 보다 나아가 버려진 흰 운동화의 패턴을 원형 그대로 해체한 뒤 하나의 원단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베스트로 재디자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르지엘라의 윤리적 패션을 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추구를 나타고 있다.

이와 같이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윤리적 패션의 미적 특성은 II장에서 고찰한 윤리적 패션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하는 단순성, 다목적성, 자연성, 전통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윤리적 재디자인 패션의 업사이클링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컬렉션 자료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 경향, 재디자인 특성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었다.

마르지엘라는 캣워크에 그런지 패션을 퍼트린 가장 영향력있는 디자이너 중 하나이다. 그의 가공하지 않은 소재의 사용은 다른 디자이너들과 구별되게 하였다. 다른 이들이 완성된 상품의 표면적 미를 추구했다면 마르지

99) 이유리(2009), op. cit., p. 107.

엘라는 패션의 근원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었다. 풀어진 솔기, 일반적이지 않은 재단 등을 통하여 가공하지 않은 소재에 대한 그의 열정을 나타낸다.¹⁰⁰⁾

100)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2009), p. 153.



<그림 67>버려진 우산을
이용하여 제작한 재킷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165)



<그림 68>축구공의 분해
패턴을 활용한 재킷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165)



<그림 69>미러볼을
이용하여 재디자인한 셔츠
(출처: Fashion Inspiration, p. 164)



<그림 70>버려진 손수건을
활용한 셔츠
(출처: www.martinmargiela.com)



<그림 71> 오래된 카드로
재디자인한 베스트
(출처: Martin Margiela, p. 261)



<그림 72> 재활용 운동화로
재디자인한 베스트
(출처: Fashion. p. 392)

위와 같이 윤리적 패션의 특성인 ‘형태의 재구성·스타일의 다목적성·소재의 재디자인’ 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의 경향인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리사이클링 아트·경계의 모호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윤리적 패션의 형태의 재구성 요소는 마르지엘라 작품의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와 리사이클링 아트와 연관이 있었고, 스타일의 다목적성은 리사이클링 아트와 경계의 모호성과 연관이 있었다. 윤리적 패션의 특성 중 소재의 재디자인은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와 리사이클링 아트, 경계의 모호성 모두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의 특성과 윤리적 패션의 특성을 연결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의 특성

윤리적 패션의 특성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의 경향
형태의 재구성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
스타일의 다목적성		리사이클링 아트
소재의 재디자인		경계의 모호성

V. 결 론

패션은 단순한 의복의 기능만이 아니라, 현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함으로써 시간과 공간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패션의 가치와 의미를 시대적인 요구와 결합하여 옷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21세기는 디자인 트렌드로 친환경 디자인 경향에서 나타난 지속가능성을 꼽으며 이제 디자인은 인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수많은 제품들이 의식 없이 대량 생산, 이용,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생산, 판매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것을 회수하여 다시 제품으로 활용해 가는 순환형 즉,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순환노선에서 제품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하여 환경의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이 패션 영역에서도 대두되어 윤리적 패션을 향한 세계 패션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적 패션의 실천을 위하여 소비자 윤리와 기업 윤리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디자이너의 작품 제작에 있어 제품 소재의 선택부터 생산, 유통, 폐기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과 인간을 배려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의 오염은 계속되고 있고 인류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일련의 노력을 통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환경과 공존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작은 일환으로써 재디자인 영역은 필수 불가결하며 그것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디자이너로써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재디자인은 디자인의 범위가 고정관념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다양함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디자인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 패션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윤리적 패션의 개념 및 형성배경과 그 특성을 정립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윤리적 패션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원단이나 의복을 겹쳐 구성한 형태의 재활용의 한 요소인 형태의 재구성의 특성을 가진다.

둘째, 인위적인 꾸밈이 없는 레이어링에서 다기능의 리버서블 디자인 등 개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의 다목적성의 특성을 가진다.

셋째, 재이용, 재가공, 재활용, 재자원화 등의 자원 순환개념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특성으로 소재의 재디자인성을 가진다.

윤리적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세계 패션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는 디자이너 중 디자인 형태의 구성에 있어 새로운 소재의 사용과 구성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틴 마르지엘라를 선정하여 윤리적 패션의 디자인적 실천방향을 분석하였다.

마르지엘라의 오프쿠튀르 패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그의 작품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래의 형태구성이 아닌 언밸런스 디테일, 재단의 변화, 입체와 평면 감동의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를 가진다.

둘째, 직물, 종이,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소재의 분해와 조합 등의 창조적인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리사이클링 아트의 경향을 가진다.

셋째, 왜곡, 변형, 해체, 교란 등의 구성과 비대칭 커팅 등의 표현을 통한 경계의 모호성의 경향을 가진다.

윤리적 패션의 특성인 형태의 재구성, 스타일의 다목적성, 소재의 재디자인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경향인 새로운 구조의 형태미, 리사이클링

아트, 경계의 모호성의 경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패션은 윤리적 패션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형태의 재구성, 스타일의 다목적성, 소재의 재디자인의 특성을 가지는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경향과 방향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다만, 윤리적 패션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 패션 컬렉션에서의 출연시기가 오래지 않아 분석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중심으로 실증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바, 앞으로 후속연구 및 비교 연구 등 다각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간호섭(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콜레버레이션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순희·서미아(2006). 의복의 입체구성 이론과 실기. 서울: 교문사.
- 고순현·김정남·신지원(2005). 윤리구매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 sustainability issue papers, 제31호. pp. 1-7.
- 고애란, 노지연(2009), 한국에서의 윤리적 패션 소비자 행동.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3. No. 12, pp. 1956-1964.
-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한국트렌드연구소 (2008). Hot trend 40. 서울: 한국트렌드연구소.
- 권영걸(2003).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도서출판국제.
- 권정원(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 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1991). 패션사진. 서울: 디자인신문사.
- 김연순(2008). 하이브리드 컬처-현대문화와 하이브리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은경(2001). 기호학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패션의 특성고찰과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2010). 윤리적 패션 확대를 위한 디자인 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산세계대백과사전(2002, 서울: 두산동아). 28권.
- 박옥련·이동철·정유정·김주희. 21세기 패션과 소비행동. 서울: 형설화출판사.
- 라사라(1991). 복식사전, 서울: 라사라.
- 브리태니커백과사전편집위원회(2002).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 서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빅터 파파넵(2011). 녹색위기. 서울: 서울하우스.
- 서문정(2003). 에코 패션디자인의 개념 정립과 사용자 참여 프로세스의 실천방안

-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예(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코-럭셔리의 조형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하나·이민선, 존 갈리아노와 마르탱 마르지엘라 패션에 표현된 여성의 몸(2010), 복식, Vol. 60, No. 7. pp. 14-30.
- 윤지영(2009), Christian Dior 과 Martin Margiela 패션 작품 도상에 대한 비교 연구, 복식, Vol. 59, No. 5, pp. 115-134
- 이민호(2006). 재사용 및 재활용에 적합한 환경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01). 발렌시아가 패션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2001). 현대 벨기에 패션디자이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리·김선우·신주영·윤창상·이성지·장세윤·정선영·최윤정(2009). 패션산업윤리의 이해. 경기: 교문사.
- 이은영(2010). 패션산업에서의 에코디자인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유순례·백천의 공저(2000). 패션. 서울: 교학연구사.
- 이태하(2009). 다윈주의 시대의 윤리-이론과 적용. 서울: 민지사.
- 장남경·김윤정·주잔나(2007). 패션산업에서의 친환경 디자인.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ol. 15. No. 6. pp. 952-964.
- 정명선·배수정·조훈정·현선희·김성은 공저(2011). 패션과 문화.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정용교(1991).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길(1997). 패션전문 자료사전. 서울: KDR한국사전연구사.
- 조영식(2002). 인간과 디자인의 교감 dialogue: Victor Papanek. 서울: 디자인하우스.
- 허은숙(2004). 에콜로지 표현의 아트 패브릭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록주(2009). 패션의 윤리학-착하게 입자 '경기도 미술관 크로스 장르전'. 경기:

경기도 미술관.

Charlotte Seeling, Fashion. Potsdam: Ullmann.

mendes, Valerie(2003), 김정은 역,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Phillip Kotler(2010), 마켓3.0, 서울: 타임비즈.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2009). Masion Martin Margiela. Newyork: Rizzoli.

Sandy Black(2011). Eco-Chic, London: black dog publicing.

Victor Papanek(2008). 조영식 역. 인간과 디자인의 교감. 서울: 디자인하우스.

Yale University Press(2006). steel. V., Fifty Years of Fashion. London: New Haven and London.

www.fashionnetkorea.com

www.samsungdesign.net

www.mearry.com

<http://blog.naver.com/sahara>

<http://biz.heraldm.com>

ABSTRACT

A Study on The Ethical Fashion in Martin Margela's Works

Jeoung, Soo Young

Dept. of Cloth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ue to the short life cycle make the growing of clothing apparel production process of waste and trash from the textile, after dying of water pollution. Environment, sustainable consumption, the interest in fashion is evolving from a product developed to consider the ethical fashion, eco-friendly and has a moral and ethical requirements. On the ethical fashion world's attention to the impact of the many designers gave the designer and consumer awareness, social and cultural trends in the use of ethical fashion and design, distribution, etc. are applied.

Martin Margiela called the leaders of the world's fashion trends as a leading designer of ethical fashion.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his work for fashion and ethical representation of physicians, and ethical fashion and related exhibits and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and in the fashion industry has been working to ethical

consumption.

In this study, drying characteristics of an ethical fashion trend in Martin Margiela's works after about ethical fashion with respect to the nature of the work by comparing the wet dry work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ethical.

Leading article about an ethical fashion, and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conduct research around the theoretical, conceptual and theoretical background to the formation of ethical fashion background and its properties were established to investigate cases that were currently underway. After digging about the nature of ethical fashion is as follows.

First, you configure multiple overlapping fabrics and garments in the form of recycling in the form of an ele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organization.

Second, the artificial layering was not acting in the versatile reversible design, etc. that might indicate an individual's personality style has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urpose.

Third, reuse, remanufacturing, recycling, recycling, and resource circu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sign has redesign of material.

Ethical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current fashion world have a major influence on the ethical fashion, practicing designer and design forms on the configuration's new material use and how to configure the automation and Martin drying Ella selecting and ethical fashion analysis of design-action direction tends to his work are as

follows:

First, the configuration is not inherently unbalanced form of the detail, the Foundation of the change, three-dimensional and flat-gamdeung new structure has the form of a U.S..

Second, textiles, paper, plastics, etc. in combination with the decomposition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waste recycling through the creative arts tends Recycling.

Third, distortion, deformation and disintegration, such as configuration and asymmetric disturbances, such as cutting through the boundaries of expression have the tendency of ambiguity.

Characteristic of reorganization in the form of an ethical fashion, style, versatility, material drying Martin Margiela of the new structure of the work gyeonghyangin hyeongtaemi, recycling art, the boundaries tend to the ambiguities of comparative analysis, the work of Martin Margiela, wet-suited for fashion ethical fashion were able to derive a conclus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thical fashion design and direction of the trend could be analyzed that has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on of the form, style versatility, redesign of fabric far away from the general design. However, the relatively recent concepts about the ethical fashion hand, and appeared in fashion collection period was not long before the analysis is that there is limited b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In addition, this study centered on the work of Martin Margiela, wet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data bars, the next follow-up studies and comparative studies based on data analysis, and multilateral in-depth research that is needed.